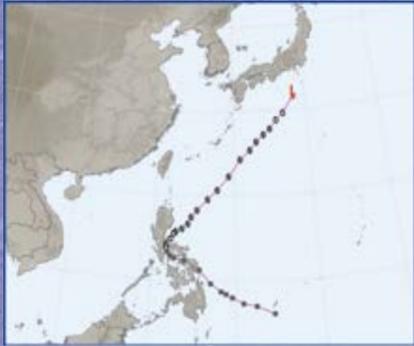


올해 한반도만 태풍 『무풍지대』

태풍 경로 사진 출처 : <https://www.weather.go.kr/w/typhoon/detail.do>



제1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

제1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는 필리핀 마닐라 남동쪽 약 11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2024/05/26 09:00)하여 일본 도쿄 남서쪽 약 47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2024/05/31 03:00)하였다. 태풍 에위니아는 필리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섬(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을 강타하고 폭우와 홍수가 발생해 8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했다. 강풍으로 전선(電線)이 뜯기고 발전소 9개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천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제2호 태풍 말릭시(MALIKSI)는 5월 31일 15시에 중국 홍콩 남서쪽 약 310km 부근 해상(남중국해)에서 발생하였다. 6월 1일 12시에 중국 광둥성 양장시에 상륙한지 4시간 만에 소멸되었다. 말릭시는 필리핀이 제안한 이름으로 "빠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23시간 30분동안 생존하고 매우 빠르게 생을 마감하였다.



제2호 태풍 말릭시(MALIKSI)

2024년 제3호 태풍 개미(발생: 07/20 15:00-소멸: 07/27 21:00)는 18년 전에 발생한 2006년 제5호 태풍 개미의 경로와 유사하고 또한 태풍의 발생과 소멸 시점도 거의 일치한다. 24일 AFP-A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필리핀 북부 루손섬 수도권 지역 곳곳이 개미가 몰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침수되고 산사태를 겪었다. 최소 13명 숨지고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난 당국은 1300만여명이 사는 마닐라와 수도권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태풍 개미는 7월 24일 대만에 상륙하였는데, 25일과 26일 이틀간 대만 중부와 남부 지역에 내린 누적 강우량이 1,200mm 내지 1,500mm를 기록했다. 24일 대만 진먼(金門)현을 필두로 전체 21개 현시가 태풍 개미로 휴교와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만철도공사도 24일 오후부터 모든 철도 노선을 운행 중단하고 부분적으로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만을 관통한 태풍 개미가 중국 남부 후난성에 상륙하면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 평균 410mm, 최대 64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후난성 쑹싱(資興)시는 11만 8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긴급대피한 주민은 약 2만명에 달했다.



제4호 태풍 프라피룬(PRAPIROON)

올해 4번째 태풍 프라피룬 호가 7월22일 오전 1시 30분 (현지시간)에 중국 남부 섬 하이난성에 상륙했다. 이어서 7월 23일 9시에 베트남 북부 팜닌성에 상륙하면서 고풍도 섬에서는 수백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고 관광객과 주민 3,800여 명이 발이 묶였다. 폭우에 의한 산사태와 홍수로 16명이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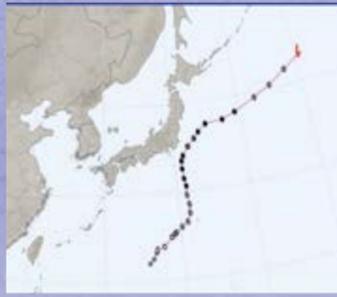


제5호 태풍 마리아(MARIA)

8월 8일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에 이어 9일 토고 인근 가나카와 현에서 규모 5.3 지진 그리고 10일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해역에 규모 6.8 지진 등 3연속 강진 직후 태풍 마리아 상륙 예보로 일본인들의 생필품 사재기가 극성을 이루었다. 태풍 마리아가 8월 12일 도호쿠 지방을 관통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내림으로써 이곳 항공기와 철도 운행을 중단했다.



제6호 태풍 손뎌(SON-TINH)



제7호 태풍 암필(AMPIL)

피해를 주지 않은 태풍: 제6호 태풍 손뎌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신화속의 산신(山神, 정령)으로서 홍수와 폭풍 등의 자연재해를 극복하려는 열망과 능력을 상징한다. 제7호 태풍 암필은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타마린드(공과목의 상록 교목)를 의미한다. 제8호 태풍 우콩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손오공을 의미한다. 제12호 태풍 리피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폭포를 의미한다.



제8호 태풍 우콩(WUKONG)



제9호 태풍 종다리(JONGDARI)

태풍 종다리(JONGDARI)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종달새를 뜻한다. 2020년 태풍 바비 이후 4년 만에 한국 서해를 횡단했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하루 동안 1,300차례 넘는 번개가 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도 밤사이 낙뢰를 동반한 강한 비를 뿌렸다.



제10호 태풍 산산(SHANSHAN)

제10호 태풍 산산은 8월 29일 8시에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에 상륙하였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날에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에서는 전날 주민 225만 명을 상대로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2022년 9월 일본에 영향을 줬던 태풍 난마돌 이후 2년 만에 태풍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규슈와 시코쿠를 오가는 항공편 480여 편이 결항했다. 규슈 전역에서 16만 8천 가구가 정전되었다.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현에서는 30일 오전 8시까지 72시간 동안 884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8월 한 달 치 평균 강우량의 1.5배에 이르는 양이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도 마비되자 도쿄역은 29일 오후 11시쯤에 정차 중인 신칸센 열차를 일부 승객에게 개방해 임시 숙소처럼 쓰도록 했다. 산산은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에 시코쿠, 주코쿠를 지나 오사카가 있는 간사이 그리고 혼슈의 중부까지 영향을 끼쳤다.



제11호 태풍 야기(YAGI)

9월 6일 중국 남부 하이난 섬에 상륙한 제11호 태풍 야기로 인하여 하이난 섬 내 주택 2만 5천채가 파손됐고, 이재민 120만명이 발생했다.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263억 2400만 위안(약 4조 9500억 원)에 달했다. 베트남 재난 당국은 30년 만의 최악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 야기(9월 7일 베트남 북동부를 강타)에 의한 홍수와 산사태로 291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으며, 다리가 무너지고 버스가 급류에 휘말리는 등 주택 23만5천채가 파손됐고 피해 농경지는 30만ha가 넘었다. 미얀마 군정은 태풍 야기에 의한 피해가 커지자 이례적으로 외국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미얀마 전역에서 약 63만1천명이 홍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국영 신문 글로벌 뉴라이프에 따르면, 15만 채 이상의 주택이 침수됐다.



제12호 태풍 리피(LEEPI)



제13호 태풍 버빙카(BEBINCA)

제13호 태풍 버빙카는 9월 16일 9시에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면서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했다. 1949년 태풍 글로리아 이후 75년 동안 상하이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상하이에서 대피한 인원은 41만 4000명에 달하며 6만 명이 넘는 응급구호대원과 소방대원이 대비하였다. 16일 12시 30분 현재 상하이 시내에서 건물 4채가 파손되고 1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상하이 공항에서는 여객기 수백편의 운항을 취소했고 여객선, 열차 등 각종 교통수단이 중단되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김해제단 : 010-7518-9981 | 영천제단 : (054)333-7121 | 대전제단 : (042)522-1560 | 橫濱祭壇 : (045)489-9343 |
| 수원제단 : (031)236-8465 | 대구제단 : 010-6530-7909 | 사천제단 : (055)855-427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神戶祭壇 : (078)862-9522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마산제단 : (055)241-1161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충주제단 : 010-9980-5805 | 下關祭壇 : (0832)32-1988 |
| 부산제단 : (051)863-6307 | 진주제단 : (055)745-9228 | 정읍제단 : 010-8628-2758 | 양평제단 : 010-2945-8254 | 大阪祭壇 : (06)6451-3914 |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진해제단 : (055)544-7464 | 군산제단 : (063)461-3491 | | Sydney : (006)0415-727-001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